

이지상의 '여행과 삶'



여행 중 겪는 가족 간의 갈등

여행을 누군가와 같이 하려면 합시다. 25년간 같이 살아 온 부부가 두 달간 자유 배낭여행을 한 후 '당신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며 이혼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규칙과 관습에 의해서 서로 조정을 한다.

그러나 여행, 특히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유 배낭여행에서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된다. 이 속소가 좋으니 나쁘니, 식사를 여기서 하자 저기서 하자, 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에어컨을 트느냐 마느냐 등등. 의견과 컨디션 그리고 취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1류 호텔에서 묵는 짧은 패키지여행이라면 모를까 몇 달간의 배낭여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모르던 상대방의 모습을 접하며 짜증을 낸다. 대부분이 아니라 부모·자식·친구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몇 달 전 대학생 조카와 2주일간 오키나와 여행을 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카가 늦잠을 잘 수 있도록 여정도 느슨하게 짜고,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갈등이 생겼

다. 조카는 배낭여행은 물론 일본 여행이 처음이라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의 말을 했었다. 일본에서는 차가 우측 통행이니 길 건너를 때 오른쪽을 먼저 보라든지, 여권·돈 분실을 조심하라는 말들을.

그러자 조카는 큰아빠가 너무 말이 많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안전과 혼욕에 대한 말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싫었나 보다.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나도 늘 차 조심 해라, 밥 챙겨 먹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짜증을 냈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며 조카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행 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나로서는 아쉬웠다. 말을 하다 종종 자기 아빠에게 수없이 들었을만한 혼욕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대화 자체를 기피했다. 조카는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혼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이 옳긴 그런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하긴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나온 여행인데 여행 중에 그런 이

야기를 다시 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는가.

그러다 작은 사건이 있었다. 정작 배틀 여행지라는 내가 휴대전화를 버스 안에서 두고 내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 찾기는 했지만 조카에게 면목이 없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국을 었지르는 등, 내가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조카는 스스로 길도 잘 찾고, 낯선 상황에서도 상황 판단을 잘하며 해쳐 나가고 있었다.

결국 1주일 만에 '나나 잘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전체 여정과 숙소·교통 등의 큰 틀은 내가 짜지만 조카가 잘 해쳐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그때부터 숙소나 장거리 이동은 함께 해 두 구경은 따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조카 나 나는 서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보이던 대학생 조카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나니 서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삶에서도 그런 것이 아닐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커도 늘 어리게만 본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며 자식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매사에 걱정하고 충고

한다. 자식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다 큰 자식들은 잔소리로 생각한다. 효과도 없다.

결국 현실에서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생기는 상처들은 자식들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몫인 것 같다. 어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처럼 아이들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그걸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 그것밖에 어른들의 할 일은 없어 보였다.

조카와 함께 한 여행은 다행히 잘 끝났다. 조카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갈등과 불만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 잔소리로 그리워질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어른들의 할 일은 아이들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그것을 싹 틔우고 키우는 것은 아이들 몫이다. 아니, 대학생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의식부터 변해야 될 것 같다. 고행화 시대를 맞아 높고 약해진 채 오래 살아야 하는 어른들은 이제 자식을 걱정 이전에 자기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다.

〈여행작가〉

의료칼럼

실명위험 높은 녹내장



송 응 주
밝은안과21병원 원장

에 통증이 생긴다. 물체가 어른거리고 주변부부터 서서히 안 보여 시야가 좁아진다.

당뇨병, 고혈압, 고도근시,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만 40세 이상 성인들이 녹내장 고위험군에 속한다. 최근에는 20대~30대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 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특히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빈번한 사용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녹내장은 질환의 형태에 따라 수술 혹은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약을 사용한 약물요법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시야 검사와 시신경 검사를 통해 치료약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녹내장으로 진단받으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평생 안약을 점안해야 한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

법이며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의 보완 혹은 대체, 그리고 섬유주 절제술과 같은 녹내장 수술의 전단계로서 각광을 받는 레이저 치료법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성형술(Selective Laser trabeculoplasty(이하 SLT) 이 바로 그것이다. 안구 속의 방수가 유출되는 통로인 섬유주에 짧은 시간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손상된 섬유주에만 선택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방법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ALT(아르곤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고, 시술 후 안압 상승 등의 합병증도 드물다. 'SLT'는 2001년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 199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녹내장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안압 검사, 시야 검사, 시신경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중 안압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안압이 높을수록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해 녹내장 발병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압이 정상범위라고 해도 녹내장이 진행되는 '정상안압 녹내장'도 있어 안압 검사시 시신경 손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압이 서서히 오르더라도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로 자신의 시신경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젊은층이라도 안압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조기에 녹내장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

기 고

임금체제 개선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정 명 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두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즉 퇴임 후 제2의 직장문제가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청년고용 절벽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취업시키느냐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취업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요약컨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얼마 전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핵심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자치구역내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 등의 입장이 다르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고용탄성치를 보면 선진국은 1.0인 반면, 우리나라는 0.5다. 우리의 경우는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은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56.9달러)의 절반수준(29.9달러)에 불과하고 OECD 국가평균(47.0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경우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연공급형 임금체제로 인하여 30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생산직 초임에 비해 임금이 3배 이상 높다.

임금을 3배 이상 받는 만큼 생산성도 3배 이상이 될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이야기 할 때 직장에서의 공정성을 빼놓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거나 더 적게 보상을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의 공정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보상의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다. 임금이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이 된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곧 바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 임금이 업무성과에 따라 움직인다면 유연성이 확보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전

반에 걸쳐 정착이 된다면 기업은 생산성과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기피할 이유가 적어지고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일도 줄어들어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고용을 늘리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는 것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이 사내유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체계,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유연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이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인력운영 시스템을 정착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더불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1913 송정역시장' 청년들의 보금자리 되길

되길 붙여오는 봄바람이 좋았다. 옷만 걸이 입고 무작정 집을 빠져나왔다. 산책 삼아 걷던 발걸이 광주송정역 앞에 멈춰섰다. 낯설었다. 그리고 설렘. 노란 조망에 이쁘게 빛나는 '1913 송정역시장'이라는 바뀐 이름 때문이 아니었다. 시간이 멈췄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했던 시장통이 시끌벅적 요란했다. 그리고 젊음이

상인. 덩달아 신이 났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청년상인들의 특색 튀는 아이템도 골랐다. 하우스맥주를 파는 '밀밭 양조장'과 한국, 일본, 태국 등 나라 라면을 맛볼 수 있는 '한끼라면'도...

구경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은 짧았지만 걸음은 더 더웠다. 조금전 미처 보지 못했던 바닥에는 과거 상가가 들어섰던 해(연도)가 붙어있었다. "1988년, 이곳엔 누군가가 희망을 품

고 비디오파게를 열었겠지..."

문득 이 골목 과거 풍경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시장골목을 동지 삼아 억척스런 삶을 살았을 '엄마, 아빠'들. 이제 모두 떠난 빈 동지에 청년들이 들어앉았다.

'1913 송정역시장'이 그 청년들에게 짝을 찾아 알도 넣고 도란도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래본다.

▲김현욱·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社 說

지역 국회의원 합심해서 호남정치 복원을

4·13 총선 결과 급변한 정국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후보로 대거 물망에 올라 관심이 쏠린다.

우선 광주·전남·북의 '녹색 돌풍'을 바탕으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에는 당 대표 후보감이 즐비하다. 박지원(4선·목포)·천정배(6선·광주 서울)·박주선(4선·광주 동남울)·정동영(4선·전주 병)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4선의 김동철(광주 광산갑)·주승용(여수울) 의원, 3선 장병완(광주 동남갑)·유성열(정읍·고창) 의원은 원내대표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근분투 끝에 광주·전남의 유일한 당선자로 재선이 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3선 이준석(익산갑) 의원이 제2기 당 비대위에 선임돼 정치적 비승이 커졌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6선 정세균(서울 중로) 의원과 4선의 고희 출신

송영길(인천 계양울) 의원을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중진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후 정열을 정비 중인 새누리당은 비교적 계파색이 얹어 화합형 인사로 지목되는 장성 출신 김창식 전 국무총리를 비대위장이나 차기 대표감으로 보고 구애를 보내고 있다. 곡성 출신으로 순천에서 당선돼 3선이 된 이정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당권에 도전할 뜻을 비쳐 눈길을 쏜다. 모처럼 호남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은 반기는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인물난을 겪어 온 터라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호남정치 복원'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다.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맞아 호남 지역 당선자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신의 야망만 좇을 게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꿰뚫는 해안과 울림을 주는 정치 행보로 그동안 실종된 호남정치 복원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기초단체 인사 비리 근절책 없나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인사 부정부당 업무 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자치구 2곳과 시립민속박물관·김치타운 등 사업소 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45억 1600만 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고, 남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 8명은 훈계 등 인사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남구는 시정과 주의 등 58건이 적발돼 41억6000여 만 원을 회수 조치당했다. 여기에는 호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과정에서 시에 반환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41억여 원을 업체로부터 받은 뒤 자체 재원으로 사용한 내용도 포함됐다. 북구는 시정 26건, 주의 12건 등 42건이 지적돼 1억2000만 원이 추징됐다. 특히 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 김치타운은 청소용역 임금 관리 감독 부적절과

김치타운 운영프로그램 개발, 운영 미흡 등 각 5건이 적발됐다. 5·18기념문화센터는 부당한 회계업무 처리, 기념공원 내 대성전 활용 부적절 등 7건이, 여성발전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절 등 6건이 지적됐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들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결원을 늘려 승진 인원을 맡게 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도 여전한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인사 비리는 세상이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건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제도 감사 시스템이 작동 원을 업체로부터 받은 뒤 자체 재원으로 사용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은 공무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無 等 鼓

현금 153억 원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가족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것 아니냐”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애덤 라로쉬(37)는 주요 신문 스포츠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가족이 우선’(family first)이라며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한 것이다. MLB에서 11시즌 동안 활약하며 255회 홈런을 기록한 그는

‘상남자’의 결단

최근 광주 시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불과 3~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실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일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승진에서 밀리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수적인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육아휴직은 아직도 언감생심이다. 또다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부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최근 광주 시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불과 3~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실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일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승진에서 밀리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수적인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육아휴직은 아직도 언감생심이다. 또다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부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승진에서 밀리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수적인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육아휴직은 아직도 언감생심이다. 또다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부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